

제2회
재난안전컨퍼런스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힘,
‘연결!’

일시
2020. 11. 12(목) AM. 10:00
대상
재난전문기관 및 자원봉사활동 관계자,
자치구 재난관리 담당자 등

공동주최



희망브리지
한국재해구조협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Seoul Volunteer Center

목 차

- **기조강연**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확장하자1
김찬호 교수(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 **발 제 1**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역할7
하재찬 상임이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발 제 2**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33
윤성미 사무국장(강서시민협력플랫폼)
- **발 제 3** 코로나19 대응 구호현장의 자원봉사 사례45
라정일 부소장 · 고재극 대장(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발 제 4**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시민들의 연결55
윤주희 주임(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조강연]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확장하자

■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김 찬 호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확장하자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왜 동물들은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실은 그들도 감염이 되지만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집단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유지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개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침팬지들도 100마리를 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인간은 문명과 도시가 발생한 이후 수십만 명 이상의 집단을 이루어 서식해왔고,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속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 결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곳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일어났다. 효율적 생산과 풍요로운 소비를 위해 구축된 거대한 상호연결망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뻗어나갔다. 인류는 여러 가지 재난을 경험해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헌신과 돌봄, 자발적인 상호부조, 영웅적인 희생정신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레베카 솔닛은 그것을 가리켜 ‘재난 유토피아’ 라고 했다.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그런 위대함이 발현되는 데 너무 제약이 많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치료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면서 기피와 격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스스로 위축되고 숨어들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강조되는 생활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문명사적 대재앙을 맞은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全)사회적인 협력을 절박하게 요구받고 있는데, 협력의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접촉을 피하고 서로를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과 항공, 숙박, 여행 등의 분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제조업도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치명타를 입는다. 다른 한편 심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차단되면서 일상이 극심하게 침체되고, 집에서 가사와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곤경은 엄청나다.

비대면의 세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만일 인터넷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이 왔다면 교육에서 산업 그리고 우리의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타격은 훨씬 컸을 것이다. 사이버 세계가 활짝 열려 있고 그곳에는 바이러스가 절대로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물리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된 가운데 영상을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음울해지기 쉽다. 타인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끊긴 채 욕망을 부추기는 이미지들만 하염없이 서핑하고 있다 보면 불행 감각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이다. 돈벌이든 인기든 ‘잘 나가는’ 몇몇 사람들에 눈길이 쏠리면서, 이 세상에 나만 뒤처져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그 광활하고 현란한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한 일상을 꾸려가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갈 곳 또는 마음 편하게 머물 장소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돈벌이든 가사 노동이나 돌봄이든 취미 활동이든 공부든 적절한 수준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적절한 균형으로 배합되어 영위될 때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거나 문제가 되는지는 사람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타인과의 관계는 행복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일과 공부에 매진하느라 소통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는데, 그 약한 고리가 재난으로 일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고립감과 우울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식구들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갈등이 깊어진 가정이 적지 않다.

오래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동안 우리가 맺어온 사회적 관계들을 돌아보는 쉽표가 될 수 있다. 학연이나 지연을 따라 모임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교류하고... 그러한 행위들 속에 깃든 마음의 풍경은 무엇이었는가. 오가는 대화들은 삶의 생생한 표현이었는가, 아니면 소란한 세상사의

증폭 또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가 주를 이루었는가. 서로를 이어주는 고리는 관계 자체에 대한 소망인가, 아니면 이해관계나 권력관계인가.

관계 속에서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언어를 통해 존재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 일깨워주었듯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호의 교환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리얼리티 자체를 생성해가는 행위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는가.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어떻게 호명하는가와 맞물려 있다.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가 빚어진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은 경험을 의미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핵심인데, 그 속성은 유전자 시스템과 달리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스토리를 지어낼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거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정체성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타인과 나눌 수 있을 때 관계는 깊고 넓어진다. 서로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삶을 펼쳐낼 수 있고, 이야기가 확장되는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알콜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에서는 멤버들이 자신이 어떻게 굴레에서 벗어났는지를 증언하면서 서로의 용기를 북돋는다.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공간에서 스스로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자각하면서 변화의 출구를 탐색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안전함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지질하고 못한 모습을 애써 감출 필요가 없고, 학력이나 수입, 아파트 평수나 자녀의 성적 등으로 우쭐대거나 주눅들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면 된다.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달으면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고통에 시달리며 마음이 부서진다. 그런데 마음이 깨지는 모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뉘는데,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이렇게 설파한다.

“마음이 부서져 흩어질 때 (broken apart), 그것은 폭력의 씨앗을 뿌린다. 수천 개의 사금파리로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적에게 날아간다. 그렇게 부서진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자신과 타인을 계속 괴롭힌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더 커다란 능력으로 부서져 열릴 수 (broken open)있다. 그것은 치유의 근원이 되어 타자와의 공감을 심화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능력을 확장시킨다.”

인간이 폭력으로 치닫는 것은 고통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파머는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에서 말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렌즈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는 사람들은 삶에서 겪어온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타인에 대한 증오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고통을 고통으로 전가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연민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 고통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절실하다.

방역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고립되고 분절되어간다. 마음을 추스르고 사회를 복원하는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파편화된 <점>들을 <선>으로 잇고, 그것을 다시 <면>으로 조립하는 도전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 상황에서 널리 보급된 줌(zoom) 같은 미디어도 활용하기에 따라 참신한 실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려면 무엇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인맥의 범위나 소통의 빈도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의 밀도를 충실하게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리모델링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이다. 내면의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기 중심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모처럼 주어진 ‘고독’의 시간이 ‘고립’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을 훈련할 수 있다면 타인과의 만남도 한결 충실해진다. 자족의 넉넉함과 환대의 너그러움으로 상대방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잠시 멈춰선 지금, 우리 안에서 고요함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보자. 스리랑카의 철학자 아난다 쿠마라스와미의 말을 되새겨본다. “존재를 멈추지 않고서는 어떤 생명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승화할 수 없다.”

[발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연결

1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 재 찬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연결



2020. 11. 04.

하재찬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나 하재찬은

모든 생명은 하늘님께서 주신 숨을 품고 키우는 거룩한 존재란 믿의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이의 거룩함 속에 부여된 인권의 천부성이 더
깊고 더 넓게 인정되고 존중받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삶을 향유한다.

- **Social_Navigator**: 수화통역사 & 사회복지사
- 소셜벤처 '희망들음' 대표, Social Venture 혁신상 수상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팀장
- 충북대 장애인지원센터 실장
-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_사회적기업지원기관 총괄팀장
- **사회기업과경제 상임이사**, 통합자원기민센터장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통합자원기민전국협의회 _ 운영위원장**
- 협중조합경영전문기(서울대학교&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퀵실당사회적협동조합 '함께' _이사 & 관설턴트**
- **한국사회적경제원대회의_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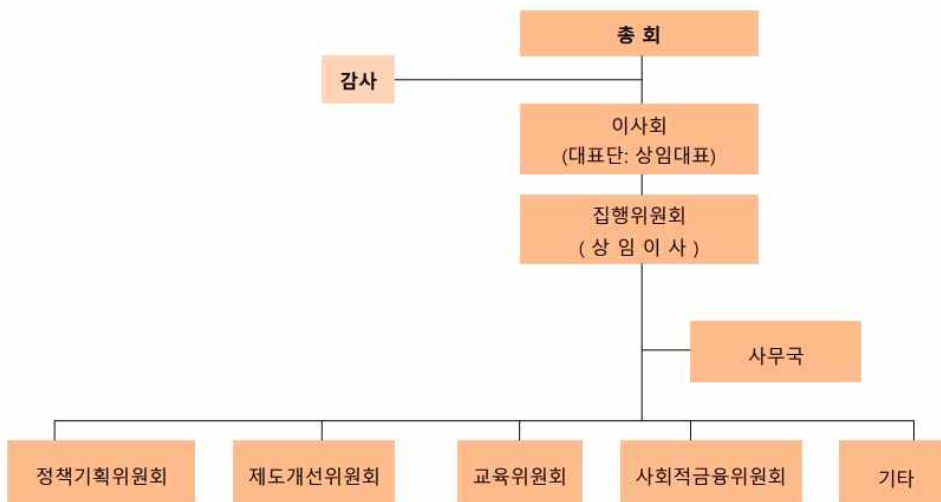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1. 출범 배경 및 목적

-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가 통합함.
- ✓ 2012년 11월 21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로 출범. (2017년 2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명칭변경)
- ✓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둘째,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의 정보 공유. 셋째, 정부와 효과적인 소통 창구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0년 10월

2. 조직 구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0년 10월

2. 조직 구성

2-1. 회원 현황 : 34개 연합회 / 28개 단체

지역: 광역 6개 연합체(강원, 울산 예정) / 기초 1개연합체. 업종: 7개 영역 / 19개 연합체 / 28개 단체. 유형: 3개 부문, 4개 생협, 1개 소셜벤처

2-2. 임원현황 : 15명 / 유형 3명, 지역 3명, 업종 5명, 당연직 4명

공동대표: 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 유영우 대표(상임대표), 전국자활기업협회 오인숙 대표, 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회장,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구영민 회장

2-3. 위원회 현황 : 4개 위원회 / 49명(비회원 2개소 포함)

위원장: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 신재걸 교육위원장,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 하정은 사회적금융위원장

- ❖ 연대회의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며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음. 이미 예전에 회원으로서 활동하였으나 아직 회원사 내부 절차를 신행하며 회원가입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 곳도 포함되어 있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3. 주요활동



목 차

- 코로나 그 혼란 속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
- 정리 및 제언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
그리고 지역과 연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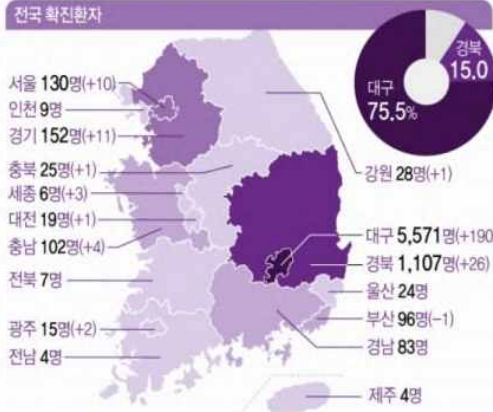


코로나 그 혼란 속 사회적경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 대구

- 2월 18일, 대구 첫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월 27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현재 5,378명이 확진을 받음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4%를 차지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대구 시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
- 대구시,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기업을 비롯하여 대구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도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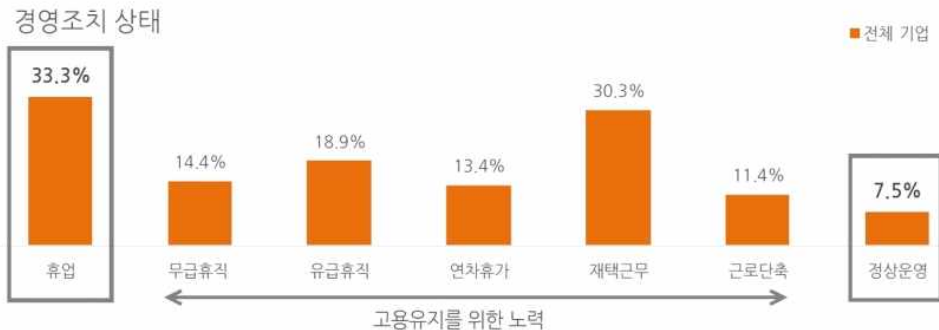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9월(월)0시 기준 () : 8월(시) 대비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경영조치 상태

- 전체 응답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휴업 상태가 33.6%가 가장 많으며, 정상운영³⁾은 7.5%에 불과함.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재택근무(30.3%)를 포함해 무급휴직, 유급휴직, 연차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총 매출액 감소율 & 납품/용역 계약 취소 금액

- 전체 기업의 총 매출액 감소율 평균은 18·19년 대비 2월 59.5%, 3월까지 피해가 지속되면 77.6%로 예상, 현 상태가 지속되면 총 매출액 감소의 비중이 높아서 사업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임
- 전체 기업의 납품/용역 계약 취소 총액은 2월 201,008만원이며, 3월까지 지속되면 300,016만원으로 10억 원 이상 상승하여 향후 1년 간 기업의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대구 사회적경제, 지역과 공동체하다!_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 | | | |
|---|--|--|
| <p>(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부금과 물품을 모아 대구시에 전달할 계획 - 현재 약 3,000만원 모금 | <p>(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과 마스크 나눔을 진행 | <p>(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업이 직접 생산한 도시락, 커피, 머핀 등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전달 |
|---|--|--|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개별기업 지역사회 활동 사례


다울건설협동조합	대구역 인근 무료급식 중단된 이후, 도시락과 마스크 지원
보기공방협동조합	직접 제작한 마스크 200개 동구청에 전달
동내책방협동조합	대구의료원 의료진 앞으로 위생장갑, 세면도구 등 생필품과 음료 지원
아가씨영협동조합	지역 복지관에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 100개 기부
우렁이밥상협동조합	매주 수요일 도시락 만들어 반월당네거리 무료급식 활동에 지원 예정
(주)공지팔지	동산병원 의료진 앞으로 영양떡 200개와 더치커피 지원
(사)성서공동체에프엠	특별 생방송 통해 천마스크 기증받아 이주노동자센터로 지원
(주)새벽수리상	3월 12일 목요일부터 대구의료원에 월~금 30인분 도시락 지원 예정
협동조합 농부장터	칠곡경북대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 유기농 포도즙 50박스 전달
(주)ODS	의료진들을 위해 여성용 양말 1,000켤레 기부
반야월연근사랑협동조합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도시락 제공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지역사회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고자 대구 사회적경제가 앞장서고 있음.

(주)공감씨즈	(주)희망정거장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p>“대구 도우러 오신 의료진, 잠이라도 편하게”... 숙박시설 통째로 내놓은 사장님</p> <p>코로나19 확산 피해</p> <p>타지역 의료봉사자 숙박지원</p>	 <p>대구사회적기업 희망정거장, 무관중 콘서트</p> <p>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무관중 공연</p>	 <p>환자 및 의료진 구호 물품 기부</p>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숙소 제공...당연히 해야 할 일”

더나은미래
입력 2020.03.10. 08:01

많이 본 뉴스 >

공감씨즈가 운영하는 공감호스텔동성로와 공감한옥게스트하우스는 지난달 25일부터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대구를 찾은 **의료진에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총 60명이 머무를 수 있지만 의료진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객실 1인 원칙으로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구 경북대병원까지 차로 4분,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까지 차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공감씨즈는 대구시와 대구 시민 덕분에 성장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한 것이다. 다만 기업의 대표로서 의료진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의료진의 감염 예방과 함께 직원들의 감염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직원들이 흔쾌히 ‘멋진 결정’**이라고 해줘서 참 고마웠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글사회적경제연대회의



원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유미)도 9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음료와 컵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취약계층 음식과 마스크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조성기)**은 17일 원주시청에 즉석 밥 450개를 전달...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우순자)**은 20일 원주지역 취약계층 80세대에 컵라면과 즉석 밥 각 240개와 도시락용 조미김 160개를 전달...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양종천)**도 12일 조합원 모금 활동을 통해 120여만 원을 마련, 라면과 소독제 등을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 **춘천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박은영)**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을 위해 홍삼액스와 간식 등 370만원 어치 물품을 전달... **춘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노남희)**도 조합원 모금 활동을 통해 17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먹을거리 후원 **원주의협동조합 허브이야기(이사장 오인숙)**와 **토닥토닥담협동조합(이사장 김희경)**, 맘카페 회원·매니저도 5일 방역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을 위해 허브떡 40kg과 과일 컵 300개, 이온음료 200개, 초코파이 300박스를 전달했으며, **영월 화이통협동조합(이사장 양승우)**도 17일 지역 의료인에게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꽃차 2천개를 전달... **사회적기업인 춘천더뉴히어로즈(대표 이태성)**는 대구·경북지역에 수건을 기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요청이 있을 때 무료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주 **사회적기업 청코리아(대표 홍정표)**는 무료 방역활동과 별도로 오는 25일 원주시에 1천만원의 후원금 전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설 명 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4층 (전화:02-6715-9445 / Fax:02-6715-0819)

이메일 : ksen121121@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ksenet.org>


문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070-4168-8530)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자

-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를 선언한다. -

□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학교는 적막함에 자리를 내주었고 사람들로 넘쳐야 할 시장과 상점은 한가하기 그지없다. 공장을 돌리던 기계마저 멈추어 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아무도 일터에서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를 선언한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HERI 뉴스

나누고 채우고...사회적 기업의 '위기 극복 클래스'

HERI | 2020. 04. 20

조회수 904

facebook | Twitter | Print | Font

"사람 줄이는 순위권 길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답게' 문제 해결"
'고용조정 제로' 선언 잇따라

십시일반 재난연대기금 모아
어려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도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가 벌이고 있는 '노 고용조정, 예스 함께살림' 캠페인이 시나브로 확산 중이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인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운동이다. 캠페인의 두 축은 '고용조정 제로' 릴레이 선언과 고용연대기금 조성이다.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벌여온 고용조정 제로 선언에는 17일 현재 147곳이 참여했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O고용조정' '#YES함께살림' '#코로나_위기극복_사회적경제_가_함께해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담은 글과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통하는 11/25 개강 번역기획서 쓰기 출판사에 나를 일리는 최상의 방법 경쟁력 있는 번역기획서를 쓰다

경제 관계잡민

“코로나19 연대” 고마워요”...사회적경제 단체들 ‘함께살림 감사행사’

등록 2020-05-14 11:26 수정 2020-06-15 15:58



고용유지 100%를 위한 펀딩에 참여하세요!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가 주관한 '함께살림 감사행사'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해온 대응본부의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이들의 활동에 힘을 보태준 기관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국내 사회적경제기관 56곳이 힘을 합쳐 출범한 대응본부는 '고용조정 제도' 릴레이 선언과 '고용연대기금' 조성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6일 기준, 고용조정 제로 선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는 총 231곳이다. 3월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한 고용연대기금 모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나래 등 236개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해 총 6억3천여만원이 모이는 성과를 거뒀다.

기금의 80%는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원에, 나머지 20%는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캠페인 제반 비용에 사용될 계획이다. 안인숙 대응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한달 반 진행됐던 캠페인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사회적경제 핵심 가치인 연대와 협력을 증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러한 실천들이 쌓이고 확산돼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조선일보 관여재판
더 나은 미래 10
 1000만 원

11월 4일(수)

뉴스룸 커브스토리 기획/특집 공익뉴스 인터뷰 오피니언 공익채용

“사회적경제의 ‘공동체 정신’이 코로나 위기 이겨내는 열쇠 될 것”

박선하 기자

입력 2020.05.26. 08:10

[인터뷰]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누구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 쉽지 않은 약속을 한 이들이 있다. ... 코로나19 이후 4곳 중 3곳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 주인공이다. 3월 26일 코로나19 사회적경제 공동 대응 본부를 꾸리고, 가장 먼저 '고용 조정 제도' 선언부터 내놨다. 이튿날부터는 자체 위기 대응 기금 마련에 나섰다. 3주간 진행된 펀딩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237곳이 참여해 1억3000만원을 모았다. 이 과정을 이끈 안인숙(5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제 기대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사회적경제가 사람을 중시하는 경제 활동을 하자고 만든 건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고하면 되겠느냐’면서 동참 의사를 전했어요. **공동체 정신이 우리의 저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난 안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희망은 ‘공동체’와 ‘연결’**”이라며 “재난 상황일수록 약자를 먼저 보살피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연결’과 ‘공동체’가 핵심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공동체’와 ‘연결’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내다봤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언택트(Untact·비대면)’가 강조되곤 있지만, 대량 실업과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이 재난 시기 가장 크게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서로 돌보는 ‘연대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선 ‘떨어짐’이 아니라 **사람 간 연결과 공동체 확대가 ‘사회의 회복’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겁니다.**

“플랫폼 노동, 환경 오염, 주택 문제… 이 문제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취약 계층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쿱생협이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같은 자본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나서서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돕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자체 출자한 재단을 통해 위기에 빠진 사회적경제 조직에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선입금했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긴급 용자 프로그램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돕는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짚은 사회적경제 원칙이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평등하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할 것’ 등이다. 대응본부는 펀딩으로 모인 돈 1억30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돈 5억원을 합한 기금 총 6억3000만원을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만장일치로 가장 먼저 지원이 결정된 곳은 대구다. 대구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의체인 대구사회가치연대 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사회를 위해 써 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대응본부는 이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했다**’며 1억원을 지원하고 회원사에 배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용 조정 제로 선언과 펀딩 참여도, 기업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배분처와 금액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

뉴스룸 | 화성기사

서초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아'...청년예술가들이 50곳 작업

출고시간 | 2020-03-19 09:46



서초구 도라지국숫집 점포 내 모습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예비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소장 이두영)와 손잡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양재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잠원동 건너수목방길 등 5개 지역의 '우리동네가게' 50곳의 내부 장식과 외관을 변모시키고 있다. 지하철 양재역 인근 도라지국숫집의 전태순 사장은 "청년들이 와서 자기 일처럼 작업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워요. 그냥 제 돈 내고 하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똑똑똑 해주니까 얼마나 신통한지..."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뉴스인 | 취재기법

안전은 권리입니다

국민일보 www.kmb.co.kr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시사 > 전체기사

제비 서식환경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서울시 제비 SOS 프로젝트 추진

입력 : 2015-05-07 17:50



우리나라에서 제비는 길조(吉鳥)로 불리지만 지나친 개발로 요즘 대도시에선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제비는 서울시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가 시민, 민간단체, 연구기관과 협력해 제비의 서식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제비 SOS(Swallow of Seou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립산림과학원, 생태보전시민모임은 제비 분포 가능 지역을 위주로 제비 번식기인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이동 시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제비 동지과 개체 수, 번식 유무, 잠자리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시민제보를 통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비 서식 지도를 작성해 10월쯤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제비 관련 생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터치포긋의 애플리케이션 '숨은제비찾기'를 통해 제비 사진과 발견 위치를 제보 받기로 했다. 제보자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제비 생태교육과 서식 현황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b.co.kr

CRESTWOOD™ MID WATERPROOF 97,300
#Columbia

#등산화 #골통비바등산화 #칼럼비바등산화

"공정 광저리" 후플한 90% 노마진 "씩쓰리"
남성 "황대" 10분만에 출결크기 7cm커져, 충격

이런주 로또1등번호 무료공개 713??
유노님 "스폰트릭스"씩쓰리 가격 알고보니

생협 평론

40

한국COOP협동조합연구소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는 화석에너지 연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석유, 석탄, 가스를 태워서 작동하는 탄소 경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다**. 나오미 클라인은 “자유시장의 전략서에 포함된 모든 원칙을 깨부수고, 기업들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탈환하면,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해 **탈탄소 경제 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뉴딜이 필요하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첫째,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 생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 둘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산과 소비인가
- 셋째, 기후재난에 대응해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안경제**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自立 홀로서기



各自圖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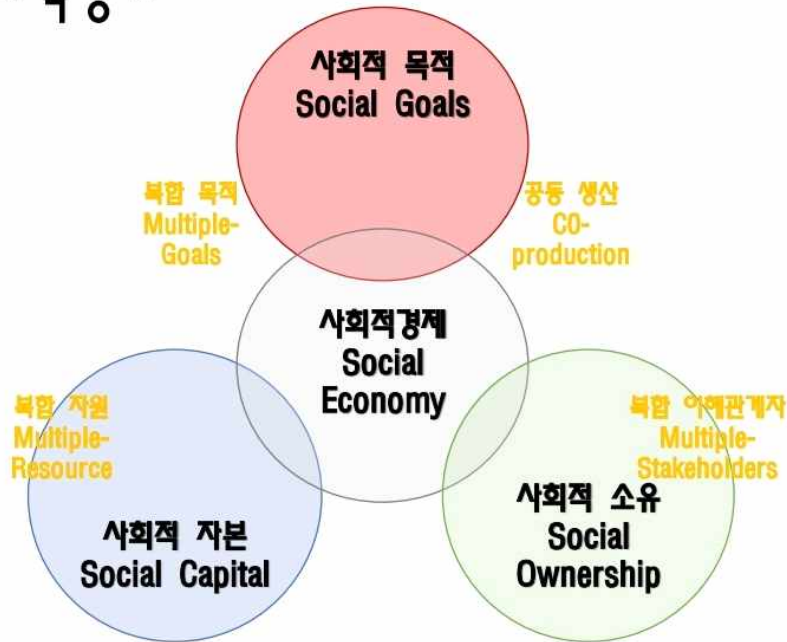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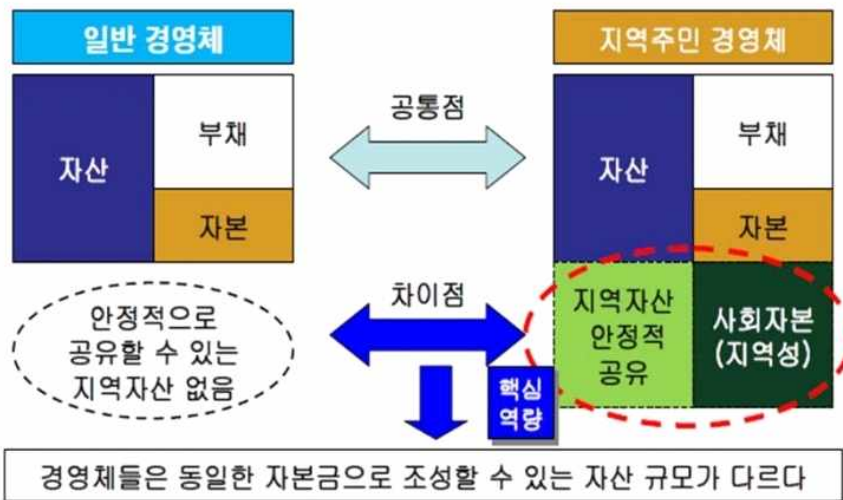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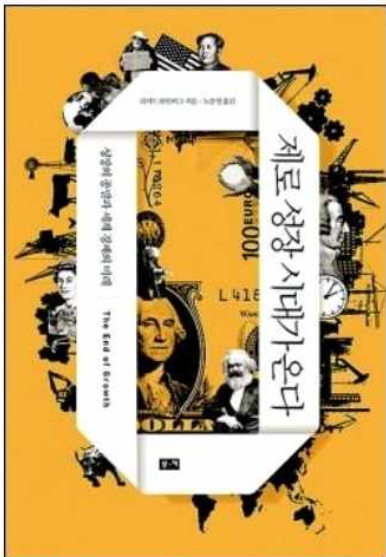
- 이인우 -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리 및 제언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 그리고 지역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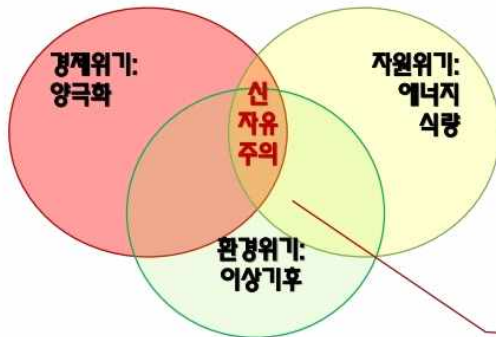


Richard Heinberg(리차드 하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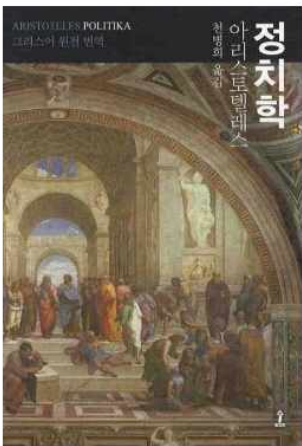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위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징표다. 다시 경제성장을 예전으로 돌리려는 모든 근시안적이고 무익한 시도는 실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근거한 것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자원위기(고갈), 환경위기(기후변화), 금융위기(경제위기)이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의



조국적 독점자본:
조국적 독점자본(금융 등)의 활동에 국가 개입하지 마라!



날마다 되풀이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가정. 완전한 자급자족인 공동체인 폴리스(polis)는 자급자족이 최종 목표이자 최선.

화폐는 물물교환(서로의 필요 충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화폐를 모으는 기술이 목적이 되었고 화폐를 무한히 증식해야 한다고 집착.

공동체는 가정과 같이 날마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급자족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화폐(자본) 증식에 대한 집착!!!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2012.11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Richard Heinberg(리처드 하인버그)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위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징표**다. 다시 경제성장을 예전으로 돌리려는 모든 근시안적이고 무익한 시도는 실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근거한 것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자원위기(고갈), 환경위기(기후변화), 금융위기(경제위기)**이다.

생존가능성이 지역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선조들처럼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원능력**이 중요하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람 인(人)

- 정용철

사람 인 자는
열 살 때 좀 쓸 줄 알았는데
기대어 산다는 것은
오십이 넘어 알았습니다.

기별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참 좋습니다.
나도 누군가 기별 수 있게
어깨를 내밉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人間
自立: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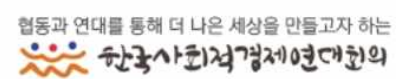


정부의 SE 인증 조건

① 조직 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역공헌 등
④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수혜자, 근로자 등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 통한 수입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의 필수사항	목적, 사업내용 등을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Source :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12) 30

이익잉여금의 2/3를
사회적목적으로 환원해야
하는
비영리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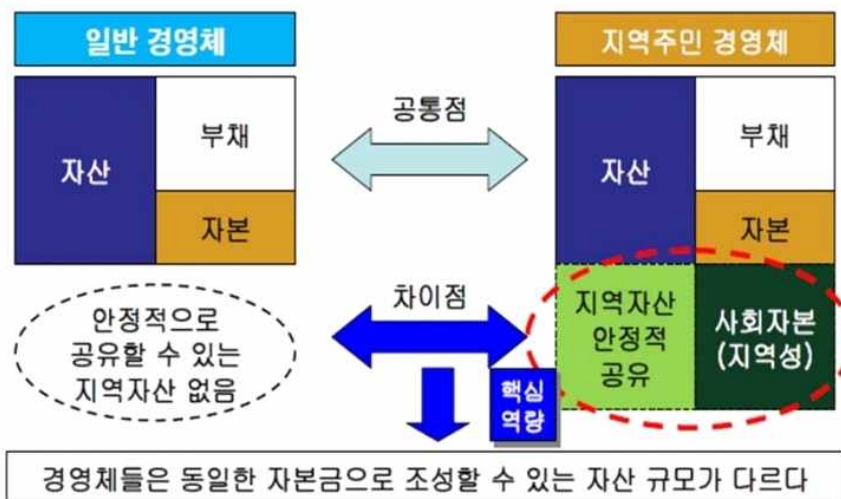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가 주관한 '함께살림 감사행사'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해온 대응본부의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이들의 활동에 힘을 보태준 기관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국내 사회적경제기관 56곳이 힘을 합쳐 출범한 대응본부는 '고용조정 제도' 릴레이 선언과 '고용연대기금' 조성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6일 기준, 고용조정 제도 선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는 총 231곳이다. 3월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한 고용연대기금 모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나래 등 236개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해 총 6억3천여만원이 모이는 성과를 거뒀다.

기금의 80%는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원에, 나머지 20%는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캠페인 제반 비용에 사용될 계획이다. 안인숙 대응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한달 반 진행됐던 캠페인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사회적경제 핵심 가치인 연대와 협력을 증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러한 실천들이 쌓이고 확산돼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COVID-19는 우리의 일상을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COVID-19는 4차산업 혁명이 초래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조만간 경험할 사회변동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뿐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한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과 집합적 임팩트의 실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장용석 교수

2020. 7. 2.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의

‘근본적인’ 사회 변화



위기의 일상화

- COVID-19의 빠른 전파력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이라는 잠재적인 위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공존
-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불안 속에 일상을 살며 경제활동을 지속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도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진행)



사회문제의 복잡계화

-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보건(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미침
- 예측 가능한 법칙성을 지니지 않고 복잡하게 나타나며 연쇄 작용을 통한 파급 효과를 가짐



위험의 개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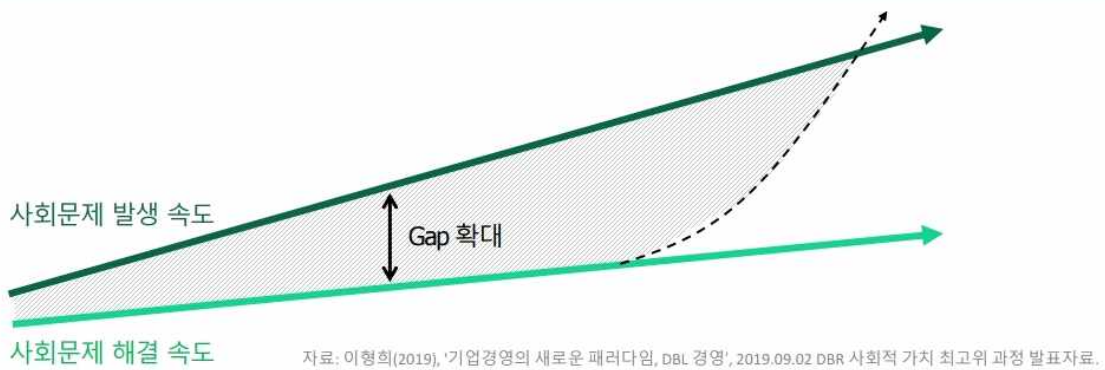
- 국가, 지역, 집단보다는 개인이 사회문제의 기본 단위가 되고, 위험의 정의, 대상, 해결, 영향력의 기준이 됨
- 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개인별 맞춤형이 되어야 함
-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개인의 협력이 부상하고 집합적 임팩트의 중요성이 부각됨

(1) 일상적이며 (2) 복잡다기화되고 (3) 개인화된 '위험'을 해소해준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의 제거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와 지불 의사가 증가하고, 이들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들이 지닌 '대면' '감염'의 위험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transfer)시켰기 때문임
- 이전된 위험의 해소를 통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기회구조가 생김

사회문제 발생속도가 해결속도보다 빨라지면서
...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위험




코로나19를 비롯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과 '집합적 임팩트' 실현이
바로 위험의 일상을 속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답이다.

집합적 임팩트

서로 기대어
함께 연결하는
것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고맙습니다

Q & A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발제]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2

■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총괄책임 윤 성 미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총괄책임 윤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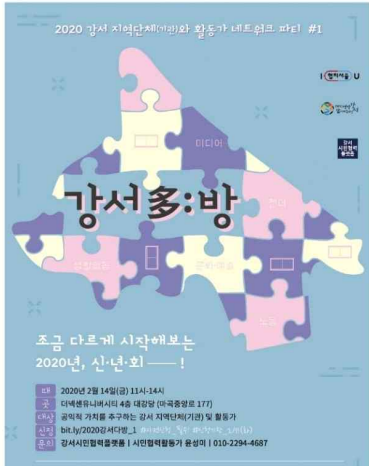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원 + 영역별 활동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1. 강서지역 기관/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신년회 <강서多:방>



‘강서’와 ‘공익적가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 단체와 기관, 활동가 36개 단체(기관),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감, 연결됨을 확인하는 신년회 & 네트워크파티 진행

#복지 #노동 #마을 #사회적경제 #장애 #미디어 #청소년 #노년학습자 #생활협동조합 #교육 #노동 #환경 #문화예술 #젠더 등..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1. 강서지역 기관/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신년회 <강서多:방>

2020 강서 지역단체(기관)와 활동가 네트워크#1 참여자 응답
우리가 꿈꾸는 지역사회

소통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 사익이 아닌 공익 실현
교육을 품은 마을 / 사람이 중심인 공동체 / 차별없는 사회
서로 돕는 좋은 삶 / 서로 인사나누는 사이 / 믿을 만한 사회
각자도생이 아닌 협력의 시대! / 힘이 되는 사회적안전망
민간의 힘이 확장되고 선순환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을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2. 네트워크 파티 이후 코로나19 급속한 확산.. 안부묻기

'감사'와 '공익적 가치'라는 공통점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단체/기관 여러분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

나의, 우리 단체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주세요.”

”

위기관, **위험한 기회**라고 했던가요.

신종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서로 **따뜻한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 온도를 높여

🔑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보면 어떨까요?

by 강서시민협력플랫폼

▶ 참여단체, 기관, 활동가 소통방을 통해 열린 의견창구 안내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3. 지역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어려움 .. '착한소비, 응원구매'

강서지역 기관소식

착한구매

함께해주세요

기본우리보호작업장

by 강서시민협력플랫폼

..... 기관 근황을 공유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시설 이용자 보호차원 휴관권고로 2월 24일 ~ 3월 22일까지 장애인이용자분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존 주문권 취소, 매출급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된다고 해도 기관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착한구매'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by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기원소식

기본우리보호작업장

강서구 기원동에 위치한 기본우리보호작업장은 중증발달장애인 31명과 함께 제과제빵, 카페, 원가공 사업으로 봉양고용을 통해 직업적응훈련 및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여러 사업들을 통해 공공기관 학교방과후,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행사 주문판매 및 수익금으로 장애인근로자, 훈련생 분들의 급여 및 기관운영을 합니다.

by 강서시민협력플랫폼

"함께 성장해나가기"

착한구매 안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착한구매 목록

머핀 / 카스테라 / 간식(디저트)세트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시(11시 이후)

주문 및 배송

3만원이상 주문하시면 신선하고 건강한 빵을 생산해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by 강서시민협력플랫폼

▶ SNS로 기관의 어려움을 알게되어 지역 소통방을 통해 어려움 전달함.
 시민협력활동가들이 '카드뉴스 제작' 지역소통방, SNS 공유확산.
 지역활동가, 기관, 단체, 의원, 개인 등의 구매 발생.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4. 공적마스크 공급 부족사태.. '착한마스크 캠페인'

- 자치구 추진단위 '강서구자원봉사센터' 연결

The image shows four informational cards related to the '착한마스크 캠페인' (Kind Mask Campaign) organized by the Gangseo District Volunteer Center. The cards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 Card 1: 착한마스크 나눔 캠페인 자원활동가 모집**
 - 활동기간: 3월 18일(수), 3월 20일(금), 3월 25일(수), 3월 27일(금), 4월 1일(수), 4월 3일(금)
 - * 2위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들이 신청바랍니다.
 - 활동시간: 오전 11시 ~ 오후 13시까지(2시간)
 - 활동장소: 화곡역, 우장산역, 방화역, 등촌역
 - 활동내용: 착한마스크 나눔 캠페인 진행 및 홍보활동 (마스크양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에게 면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 모집대상: 신체 건강한 20대 ~ 50대
- Card 2: 착한마스크 나눔 캠페인이란?**
 -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 시민사회 '마스크 양보' 캠페인 확산
 - * 서울시 '착한마스크세븐' 920만개 우선지원
- Card 3: 강서구자원봉사센터**
 - 강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6월 24일 설립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육성, 관리,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나눔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여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확대되고 이어져서 강서구민 모두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하는,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서울시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착한마스크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연락, 강서구 추진일정 확인. 카드뉴스 제작, 배포. 착한마스크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결.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4. 공적마스크 공급 부족사태.. '착한마스크 캠페인'

-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참여 후, 진행정보 상세 안내

The image shows four informational cards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착한마스크 캠페인' (Kind Mask Campaign):

- Card 1: 시민사회 + 서울시가 함께 하는 [착한마스크 캠페인]이란?**
 - 보건용마스크(KF80/94)가 꼭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의료기관, 어르신, 임산부 등), 감염취약 직업군 (택배기사, 다중고객응대 종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적마스크 구매 기회를 양보하는 캠페인
 - 최근 시민사회 '마스크 양보' 캠페인 확산에 있어 서울시가 이를 통해 서울시내 공재공장에서 제작한 면마스크 320만개를 우선 지원합니다.
- Card 2: 강서구에서는요 with 강서구자원봉사센터**
 - 일시: 3월 18일(수), 20일(금), 27일(금), 4월 1일(수), 3일(금) 11:00-13:00
 - 장소: 화곡역, 우장산역, 방화역 (역사 안) 등촌역(역사 밖)
- Card 3: 강서구에서는요 with 강서구자원봉사센터**
 - 보건용마스크(KF80/94) 기부 또는 마스크양보캠페인 동참 스티커 참여 시 [착한 마스크 세트] 증정 (성격구 부채공정 제작)
 - * 한정된 수량(선착순)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Card 4: 착한 면 마스크 사용 안내**
 - 면마스크는 기침 등으로 인한 비말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밀접도가 낮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곳 등 감염우려가 높은 환경에서 건강한 일일생활을 위한 보조적 역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위험 높은환경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마스크 사용 전후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거나 동봉한 손소독제로 닦으세요
 - 실과 고리를 완전히 꺼내고 최대한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도록 맞추세요
 - 스고 벗을 때 끝표면을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씻거나 숨기기 전엔 세탁하시되, 약 50회 정도 세탁사용 가능합니다

▶ 역량있는 시민사회 활동가(일상적 캠페이너)들과 직접 참여하고 진행방식 및 시간, 장소정보, 착한 면마스크 사용에 대한 정보 공유확산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5. 강서지역 곳곳의 연대 이야기

강서지역의 따뜻한 나눔

방화3동 주민모임, 우연산동 지원봉사 주민분들, 직면마스크 제작이 필요한 곳이나눔

화곡분동 사랑들 주민들과 마을모임들이 120만원을 모금, "대구어머니재단" 통해 대구 아이들의 신체에 따른 방 안 키로 전달 (대구시 상가에서 도시락 제작)

강서구 마을공동체

강서구마을자치센터의 직원활동가 11명과 마을지원활동가 11명이 모은 성의, 1백만원, 50만원은 대구지역의 마을지원센터들 통해 대구상황실에, 5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강서지역 코로나 극복 성금으로 지정기탁하여 연대의 손길과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강서구마을자치센터

코로나-비어있고 빈집으로 바뀌는 집사촌(중개업자)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가까이

마음의 거리 **100기**

코로나19, 이웃과 인성으로 이겨내는 인사문화캠페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성함과 에이팟코리아가 함께 코로나19 피해 사회적 치유 프로젝트를 위한 **오공 운동장행 대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한 끼 도시락 긴급구호' 사업으로 전달(2주간 200명(2,800명) 지원)

+ 실천활동(온라인 레시피 대회/달상나눔 캠페인)

강서아이뉴스네이션활동조합

코로나19로 인한 강서구 전도원 휴원으로, 강경고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는 **강경고시 교재+간식+생활용품 배달 서비스**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착한구매 동참 감사합니다

강서시민협력활동들, 시민협력활동가(유성민, 서울남서여성연우회(이연희)과,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오정우)와, 강서구인화회(방희희), 시민법안누리마을연구소(정우영), 가정3동(이영영), 강서방송, 강서신문(김재태)과, 강서여성안락개발센터(김미영)와, 강경고시 지원) 봉제산방과 후원활동조합, 신안상점 후원(해미) 시민활동가(이재민), 기본우리복지관(양광현), 기본우리체육센터 - 우경보호센터, 구로행복한지역아동센터(이영희)와, 구로구립지구촌지역아동센터, 고창시 대화동주민센터(이미란), 강서방송(이재기)와, 오곡관리회 이동부, 화곡동 아울공동주택

기본우리보호직업장

by 강서시민협력활동가

▶ **강서지역 따뜻한 나눔 사례 취합. 지역 내 곳곳의 연대하는 희망과 감사의 이야기**
 강서구 마을공동체, 강서구마을자치센터,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강서아이뉴스네이션,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착한구매 동참 감사(강서지역 의회의원,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복지관, 시민활동가, 언론, 교회학교, 공동주택, 행정, 지역아동센터, 인근지역 기관 등..)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5. 강서지역 곳곳의 연대 이야기

도움이 필요한 곳, 알려주세요!

기부용 면마스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누리마을연구소

서울시 돌봄SOS 제공기관 시정취업 모어나눔 협동조합에서 무료 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단체 있으시면, 연락을 위해 알려주세요^^

(사)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강서구 내에 중소, 소규모, 영세사업자 권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전달주세요^^

강서구노동복지센터

by 강서시민협력활동가

+ 나누고 싶은 **공감 나눔 응원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KakaoTalk **Plus친구** 강서시민협력활동가

➡ 채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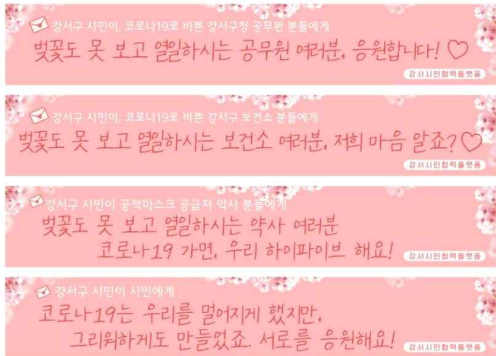
by 강서시민협력활동가

▶ **강서지역 따뜻한 나눔 사례 취합. 지역 내 곳곳의 연대하는 희망과 감사의 이야기**
 시민협력활동가들이 단체의 근황을 묻고, 기부용 면마스크 봉사, 무료방역, 관내 중소 소규모/영세사업자 권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확인, 공유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6. 코로나19 응원현수막 게시

- 강서구 시민이 코로나19로 바쁜 공무원, 보건소, 약사 그리고 시민에게



▶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운영위원회 회의 응원마음 모아집
관내 3개 지역, 10곳 "강서구 시민이 코로나19로 바쁜
공무원, 보건소, 약사 그리고 시민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7. 코로나19 강서응원꾸러미

- 코로나19 강서응원꾸러미 마련을 위한 십시일반 모금, 응원꾸러미 공동작업반 구성



- ▶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참여 운영위원회 단체 중심 제안
시민단체, 시민, 노동조합 십시일반 현금/현물 모금 참여/ 4월 8일 ~ 12일 (5일간)
약 500여만원 상당
- ▶ 십시일반 모금 참가자들과 '응원꾸러미 공동작업반' 구성
- ▶ 대상자 및 꾸러미 전달연계
노동시민단체의 제안으로 공적의료진,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방역, 택배노동자 대상 확정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강서구보건소&안전관리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를 통해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08.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하는 강서시민사회 집담회

- 코로나19 이후 시민사회단체 영역의 모습, 걱정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나눔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하는
강서시민사회 집담회**

프러머 권을 변화된 모습들,
시민사회단체 영역의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걱정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대화하자.
새로운 공존의 미래를 위한 시민연대를 기대합니다.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14시-16시30분
장소 | 전국권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 사무실 (강서구7동)
준비 | 개인엽, 변화된 모습속에 고민되는 내용 (A4, 1페이지)
문의 |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총괄국장 윤성미 (010-2294-4687)
*집담회 사전 준비를 위해 19일(목) 오후 4시까지 참가인원을 알려주세요.

- ▶ 지역안전망 구축, 공론장 형성, 기금조성, 지역경제, 정보 수/발신, 정책제안 및 캠페인, 지역시민교육 등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지역사회 협력 활동경험을 돌아보며

-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간 일상적 파트너십 중요성 확인
- 지역 내 일상적 관계망이 상호 지지의 계기 마련
- 위기의 순간 선의의 자발적 연대의 가치 확인
-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 적극적 참여로 인한 경험 축적
- 공동체, 네트워크, 연대의 필요성 공감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내 사람들의 지속하는 연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코로나19 대응
구호현장의 자원봉사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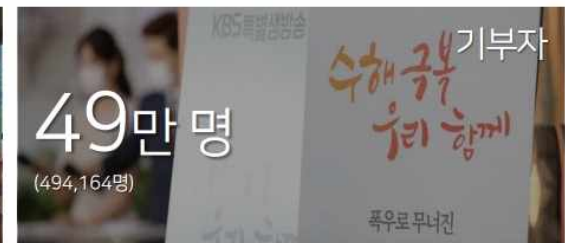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라 정 일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구특임단 대장 고 재 극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17

숫자로 보는 희망브리지 수해 구호활동





법정 명칭 (사)전국재해구호협회
BI 희망브리지

19

설립근거와 미션



1961년 재난재해 피해자 (이재민)를 돕기 위해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구호단체이자 법정구호단체 입니다.

법적근거

- 협회 설립 근거 (재해구호법 제29조)
- 자연재난 성금에 대한 배분 총괄
(재해구호법 제25조)

협력기관

- 국내외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의 공조를 통한 긴급구호 추진
- 지방자치단체 : 247개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

20



오늘도 출동~!

대구특임단
고재극



신천지 집단 감염 사건.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점점 늘어나는 **확진자**
불안한 봉사자들...



병원·보건소
의료진 구호물품
전달활동



**장애인
구호물품
전달활동**



**독거어르신
구호키트
전달활동**



탐방객을 위한
방역활동



의료진 힐링도시락 / 간식 전달 활동





호우피해 **세탁** 작업 활동



평소 꾸준한 **훈련과 교육**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구특수임무구조단



[발제]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시민들의 연결* **4**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임 윤 주 희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시민들의 연결

비대면 재난 구호소 캠프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캠프]
사례 중심으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윤주희 -

가족이 함께 하는 재난 구호소 체험 캠프?



[캠프O.T - 재난이해교육]



[재난 구호소(쉼터) 설치]



[재난교육 - 화재대피훈련]



[재난교육 - 심폐소생술]



[재난교육 - 재난 VR체험]



[재난 심리지원 활동]

가족에게는 체험과 교육의 기회 + 재난을 대비하는 네트워크 훈련

코로나 19로 맞이한 위기



전염성 ↑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없음

가족 캠프 X
체험활동 X

코로나 19로 맞이한 위기

“우울·불안” 10명 중 7명 ‘코로나블루’ 경험...의사 상담 까

기사입력 2020.06.03 오전 11:10 | 기사원문 | 스킨 | 본문듣기 · 설정

Q. 코로나블루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했다
54.7%

4월 조사결과

“외출중이나 아이들도 힘들다...
침이만 있으면 정말 번민”

한편, 학부모 응답자 중 46.5%는
“코로나 이후 자녀들봄 때문에 갈등 경험”

Q.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계기는?

경험했다
69.2%

6월 현재 조사결과
(▲ 14.5%)

1위.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때문에 (16.6%)
2위.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13.9%)
3위. 건강염려증 유발 (13.6%)

자료제공: 알바콜

[NOW] 코로나로 '집콕'... 대낮 층간소음 갈등 급증

기사입력 2020.06.19 오전 3:18 | 기사원문 | 스킨 | 본문듣기 · 설정

재택근무 계속된
예전의 주로 야간
관련 민원 적년5

2월 층간소음 민원 2만600건...원월 대비 38% 증가
· '집콕' 증가하며 이효율 곳곳서 층간소음 스프레드 호소

연말뉴스
깊어진 어린이집 휴업...늘어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기사입력 2020.06.08 오전 7:08 | 기사원문 | 스킨 | 본문듣기 · 설정

농촌경제권 구원, 수요 확대 기대 눈보 확대 필요

연말뉴스
'코로나 여파' 전국 음식점 3개월간 식자재 구매액 2조원 감소

기사입력 2020.06.08 오전 6:58 | 기사원문 | 스킨 | 본문듣기 · 설정

YONHAP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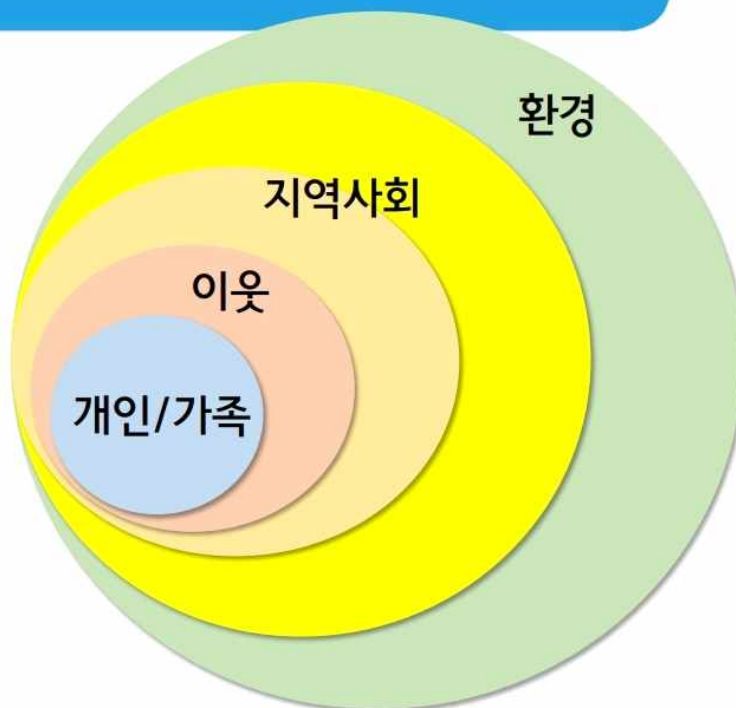
위기에서 전환으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



비대면 활동

미션 수행



확장되는 연결망

비대면 재난 구호소 캠프

심리방역

갈등관리

가치소비

택배기사
응원

재난 DIY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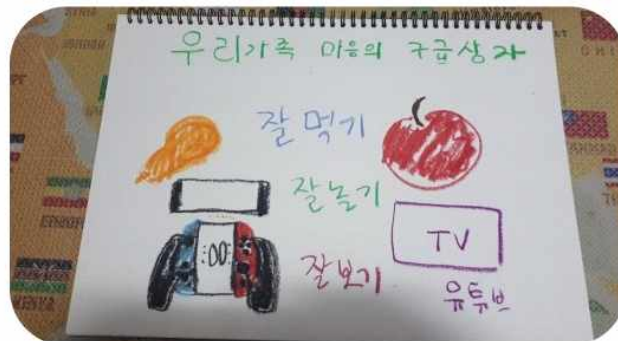
코로나19와
환경

심리방역 활동

개인과 가족의 마음을
불안으로부터 돌보기

가족간의 관계 다시
생각하는 기회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활동



갈등관리 활동



이웃을 다시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

비대면으로
이웃과의 소통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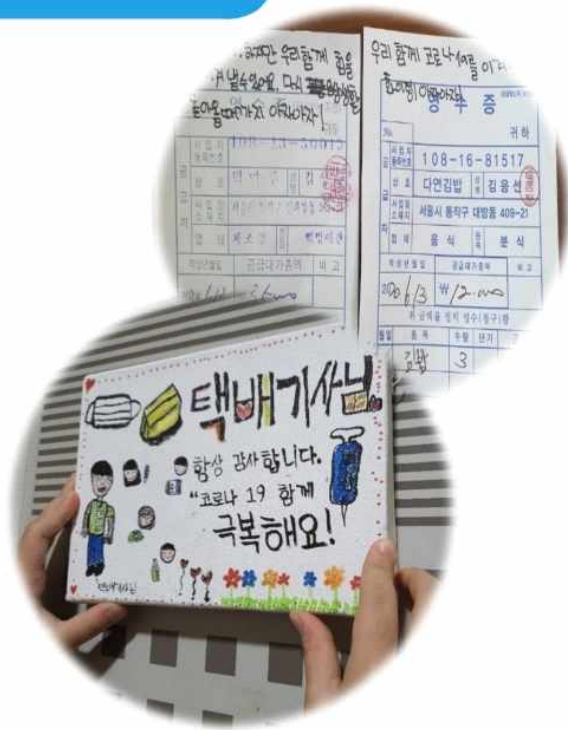
무언가를
나누는 즐거움,
나눔을 통한 소통

가치소비 & 택배기사 응원 캠페인

지역사회에서 힘든 가게와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

영수증 등
일상 속 물건을 통한
비대면 소통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
메시지 전달



재난 DIY 교육 & 코로나19와 환경교육



의료진 등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고를
실제적으로 알아감



일상과 연결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알아감

지역과 함께한 비대면 구호소 캠프

9개

비대면 캠프 운영 자치구

동작구

중구

송파구

영등포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성동구

금천구



송파(신체방역)



영등포
(마스크줄,
제습제 나눔)



동대문
(코로나19와
쓰레기)



서초, 동대문, 금천

비대면 캠프 참여소감

소감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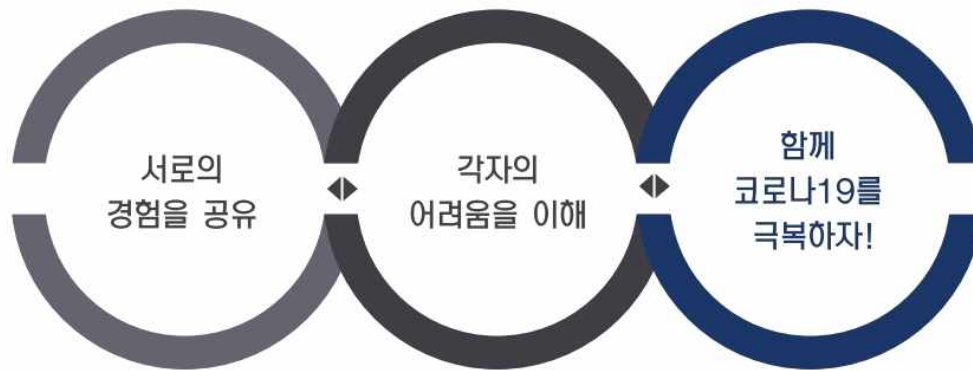
다각적인 네트워크



코로나19가 일상적 재난이 되는 순간, 다양한 연결 지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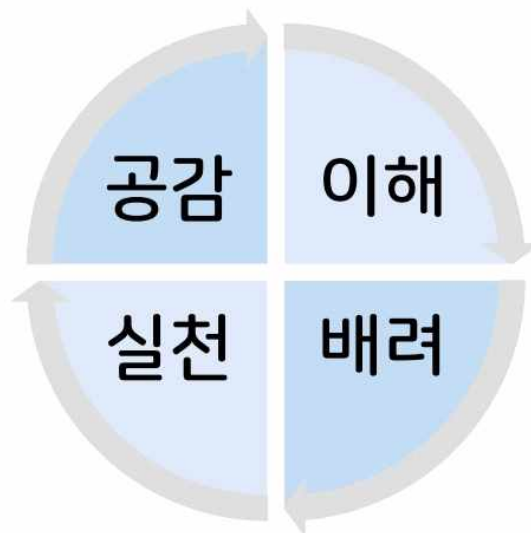
온라인 도구(zoom) 활용한 가족 캠프

비대면 연결의 힘!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 **연결!**

연결은 '공감'부터 시작하는 것



'나'와 '타인' 연결, 자원봉사의 씨앗

숫자로 보는 비대면 구호소 캠프

9개

[비대면 캠프 운영 자치구]

125가족
368명

[캠프 참여 총 가족 수]

4.5점

[비대면 캠프 평균 만족도]

92%

[캠프 재참여 의사 비율]

92%

[자원봉사 참여 의사 비율]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필요한 변화

- ✓ 다양한 형태의 참가자 고려
- ✓ 온라인 도구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고려
- ✓ 캠프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 의사가 생긴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와 참여기회 제공
- ✓ 연결의 경험들 → 관계로 전환 → 회복력의 기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자★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연결을
앞으로 요구할 것인가?*
